아시아여성네트워크 보도자료

배 포 일 시	2024년 1월 11일(목)	담당	(사)아시아여성네트워크 대표 황정아 010-4078-119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광주여성단체회관 2층
Tel :062 681-1192 Fax; 062-361-6076 E-mail; asiasisnet@gmail.com asiasisnet@naver.com
http://asiasisnet.org/

보 도 요 청

미얀마 까친 주 바모 읍 IDP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젝트 사업 종료 : 재봉틀·버섯재배 기술훈련 프로그램

(사)아시아여성네트워크는 2024년1월, 미얀마 까친 주 바모 타운십(Kachin state Bhamo Township) 국내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ople) 여성 대상 생계 기술 훈련 프로프로젝트를 종료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 분쟁으로 인해 실향한 피난민 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9년 재봉틀과 버섯재배훈련을 시작하였고 4년 4개월 동안 89명의 주민(재봉틀 훈련 30명, 버섯재배 훈련 59명 / 여성 87명 남성 2명)이 이 기술훈련에 참여하였다,

이 생계 기술 훈련은 바모 지역 두 개의 CSO단체와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성과로 “재봉틀과 버섯재배에 대한 기술훈련 시스템 구축, 참여자들의 소득과 자신감 향상, 재봉가게와 소액대출 기구 설립으로 기술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 할 수 있다.

즉, 재봉틀 훈련 참여자 80%, 버섯재배 참여자 40%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 여성들의 기술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경험과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버섯재배 훈련의 경우 IDP캠프 폐쇄에 따른 이주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섯재배 시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비 회수의 어려움으로 재배에 종사하는 인원이 작지만 재정착이 완료된 후 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훈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버섯재배 80%, 재봉틀 100%)고 답했고 훈련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자신감 상승과 소득 활동(버섯재배 훈련 80%, 재봉틀 훈련 70%)을 꼽았다. 훈련 이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였고(재봉틀 참여자 100%)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재능과 수입을 이웃과 나누겠다(재봉틀 참여자의 80%, 버섯재배 참여자의 90%)가 고 답하여 자신이 받았던 지원을 다른 이웃들에게 재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버섯재배 참여자 65%, 재봉틀 참여자 83%는 여전히 불안, 우울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2022년부터 본격화된 IDP캠프 폐쇄에 따른 재정착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가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캠프를 벗어나 일반 주거지로 옮겨야 하는 일이 IDP주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이 생계기술 훈련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 움속에서 생활하던 IDP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존엄을 구현하는 힘을 갖추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술훈련 사업을 함께 운영한 바모의 CSO와 아시아넷 모두 지방에 있는 소규모 INGO이지만 국제협력 사업의 전형을 만들고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기술훈련은 2019년 전문직여성무등클럽, 세상을잇는힘, 자연드림생협, 빛고을생협 등 지역 단체의 재봉틀 기부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전KPS, 바보의나눔재단 지원으로 활동이 이어져 왔다.

4년여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기관과 개인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시아넷은 아시아 취약계층 여성들과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첨부>

활동사진 10매

까친 주 바모 타운십 IDP 소개

<참고>

까친 주 바모 타운 십 IDP캠프는?

까친 주 바모 타운십은 미얀마 북부에 위치하며 까친의 주도인 미찌나(Myitkyina)에 이어 두번째 큰 도시이다. 소수민족인 까친족(징포족)이 주로 거주하며 상업도시인 양곤으로부터 1,200KM 거리이며 비행기로 2시간, 자동차로 20시간 소요된다.

까친은 오랜 시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식민지 시절 버마민족주의자와 함께 반영, 반일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1962년 네윈의 쿠데타 이후 까친독립협회/까친독립군(KIO/KIA, Kachin Independence Organaization/Kachin Independence Army)를 결성하여 소수민족의 독립에 반대하는 군부에 맞서 무장투쟁을 지속해 왔으며 2021년 민 아웅 흘라잉의 쿠데타 이후 까친의 분쟁은 확대되었다.

바모 타운십의 IDP캠프는 2010년~2012년 미얀마 군부와 KIA간의 분쟁으로 난민, 실향민이 발생하였고 이때 바모로 강제 이주된 IDP주민들이 4만여명에 달했다. 갑작스런 분쟁으로 삶터에서 쫓겨난 주민들은 IDP라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다. 주민들은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었지만 농토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간간히 얻을 수 있는 일용노동과 국제기구의 구호에 의존해 생활했다. 2013년 미얀마 여성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 IDP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전쟁 트라우마 회복, 폭력을 피할 수 있는 쉼터, 생계를 위한 기술 훈련'을 꼽았지만 IDP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시아넷과 바모 IDP여성의 만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바모의 IDP캠프 여성 리더들이 아시아넷이 주최한 '미얀마 인권활동가 훈련 프로그램인 룰루랄라 치치킹킹'에 참여하였고 이때 IDP 여성 상황에 대해 인식하였다. 2년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2019년 10월 5대의 재봉틀을 지원하여 소규모 재봉틀 훈련을 처음 시작하였고 2020년 버섯재배 훈련을 시작하였다.

프로젝트 시작후 코로나19, 군부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활동이 이어졌지만 무사히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는 현지 협력 단체인 CSO활동가들과 참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고 광주와 미얀마 풀뿌리 단체의 연대의 결실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이라 할 수 있다.